제 3 장 서양 중세 철학

1. 오캄의 새로운 길(via moderna)

1)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제작자로 창조주를 이해했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용인으로 창조주를 이해했다.

◇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는 『고백론』에서 감각 세계의 허망함으로부터 내면세계의 명료함으로 이행하고 있다. 물론 이 방향은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상기의 방향이기도 하다. 그는 내면세계의 명료함(=형상의 명료함)을 빛의 형이상학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태양[=창조주]은 빛[=형상]을 비추어 사물들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의 눈[=정신]은 그 빛을 통해 사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빛[=형상]은 인간의 정신에도 그리고 사물에도 내재하는 것으로 사유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과 달라지는 지점은 그가 창조주가 형상과 질료마저도 모두 창조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데 있다.
◇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창조주(제 1 원리)가 최초의 개체들을 창조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창조된 최초의 개체들(제 2 원리)은 '형상-질료'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신과 같은 형상의 개체들[후손들]을 만들게 된다고 생각했다. 결국 우리는 경험적인 탐구를 통해서 개체들의 형상인과 질료인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개체들이 존재하게 되는 목적을 결정했던 작용인으로서 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오캄의 세계 인식은 <직접성의 원리>와 <독자성의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

◇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신은 기본적으로 어떤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을 만들었다. 따라서 필연적인 법칙을 알면 그것으로 신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캄(William of Ockham, 1285?-1349)은 신은 각 개체를 직접 만들 수 있다고 긍정한다(직접성의 원리). 그러므로 각 개별자들은 각각 다른 개체들과 무관하게 신의 전능에 의해 존재할 수 있다고 추론된다.(독자성의 원리)

※ 실재론과 유명론 ※
실재론이라는 말만큼 서양철학사에서 굴곡과 오해를 많이 만들었던 개념은 없을 것이다. 원래 실재론[realism]이란 말은, 서양 중세철학에서는 유명론[nominalism]과 반대되는 사유 경향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이렇게 유명론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실재론은 보편자[universals]를 실재하는 객관적인 존재로 보는 입장을 가리킨다. 그러나 근대철학에서 실재론은 물질적 대상들이 인식 주체 바깥에 객관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사유 경향을 가리킨다. 따라서 근대철학에서의 실재론은 유명론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론[idealism]과 대립된다. 왜냐하면 관념론은 어떤 물질적 대상이나 외부의 물체들도 우리의 인식이나 의식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상한 아이러니지만, 중세철학의 실재론은 근대철학의 관념론과 연결되고 반대로 중세철학의 유명론은 근대철학의 실재론과 연결된다. 이런 혼동 때문에 일군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리한다. 즉 중세철학의 실재론은 존재론적 실재론으로 근대철학의 실재론은 인식론적 실재론이라고 부르고, 또 중세철학의 유명론은 존재론적 유명론으로 근대철학의 관념론을 인식론적 관념론이라고 부르자는 것이다.

3) 오캄의 면도날과 개별자의 형이상학

◇ “다수성은 필연성 없이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오캄의 면도날).” 이 말은 개별자들을 언어의 다양성에 따라 다수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현실태, 능동태, 형상, 제 2 실체 등의 용어는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주어진 개별자들 속에 마치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 오캄에 따르면 보편자(universals)는 영혼 외부가 아니라, 영혼 내부에 실존하는 것이다. 그의 유명론이 보편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그 보편자가 영혼 외부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착각만을 부정한다. 그래서 그는 보편자의 형성 능력, 정신 활동의 능동성을 영혼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오캄은 인식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가 자립적이고 개별적인 것을 파악하는 ‘직관적 인식(notitia intuitiva)’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런 개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는 보편자를 파악하는 ‘추상적 인식(notitia abstractiva)’이다. 참고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든가 혹은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든가 하는 내 마음 속의 감정과 생각도 오캄에게는 직관적 인식의 대상이다. 외부 개별자에 대한 직관은 근대 경험론의 테마라면, 내부 개별자에 대한 직관은 데카르트의 성찰이란 테마를 가능하게 한다.